

한국문학치료학회 안내문

주 소 : 우편번호) 05029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문과
대학 409호
회 장 : 이강옥 ☎010-9812-3193, kolee@ynu.ac.kr
총무이사 : 황혜진 ☎010-8286-5038, jiny@konkuk.ac.kr
총무간사 : 이유경 ☎010-2771-2105, sweet_yk@naver.com
학회홈페이지 : <http://www.literarytherapy1999.net>
학회 메일 : literarytherapy@hanmail.net

한국문학치료학회 제184회 학술대회

- * 일시 : 2019년 2월 23일(토) 13시 30분~17시 50분
- * 장소 : 건국대학교 인문학관 (19번 건물) 교수연구동 401호
- * 일정 :

1. 회원 등록(13:30-14:00)

2. 개회식(14:00-14:10)
대)

사회 : 하은하(서울여

학회장 인사
대)

회장 : 이강옥(영남

3. 발표 및 토론(14:10-17:30)
대)

사회 : 하은하(서울여

발표 1 (14:10-15:40) : 합리적 삶의 가능성

좌장 : 박일용(홍익대)

발표 : 김 석(건국대)

토론 : 이수진(아주대)

중간휴식 (15:40-16:00)

발표 2 (16:00-17:30) : <새끼 서 발>과 <캘올란 이야기>에 나타난
한·터 설화 속

바보 형상의 보편성 연구

좌장 : 최원오(광주교대)

발표 : 손영은, 조홍윤, 메르베 카흐르만(이

스탄불대)

토론 : 박현숙(건국대)

4. 연구윤리 안내(17:30-17:40) 사회 : 하은하(서울여대)

5. 폐회(17:40~17:50) 사회 : 하은하(서울여대)

2019년 2월 23일
한국문학치료학회장 이강욱



*** 학술대회 공지사항 ***

1. 학술대회장 안내

① 지하철 이용시 : 2호선 건대입구역 2번 출구,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3번 출구

② 버스 이용시 : 721, 4212 (건대입구역 방향), 302, 3216 (어린이대공원역 방향)

③ 자가용 이용시 : 일일주차권을 준비해놓겠습니다.(주차권 1매 2,000원)

㉠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를 지나 구리판교간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서하남에서 나와 올림픽대교를 건너 직진하면 오른쪽에 어린이대공원이 있고 맞은편에 건국대학교 건국문이 있습니다. 또는 올림픽 대로를 이용하여 잠실대교를 건너서 구의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지하철 2호선 방향으로 직진하면 오른쪽에 건국대학교 상허문이 있습니다.

㉡ 중부고속도로 상일, 하일 또는 서하남에서 나와 올림픽대교를 건너 직진하면 오른쪽에 어린이대공원이 있고 맞은편에 건국대학교 건국문이 있습니다.

2. 참가비

- 전임 : 2만원 / 비전임 : 1만원(발표요지 및 저녁식사 제공)
단, 좌장, 발표, 토론을 맡으신 선생님께는 참가비를 받지 않습니다.

3. 건국대학교 한국문학치료학회 학술지 안내

* 최근 발간된 학술지는 『문학치료연구』 50집(2019.01)입니다.
*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은 한국문학치료학회 홈페이지 <http://www.literarytherapy1999.net>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본 학회는 연구발표를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문학치료 관련 발표를 환영합니다.

* 첨부된 발표신청서를 작성해서 학회 메일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학회 메일 : literarytherapy@hanmail.net)

5. 다음 학술대회 예정일 : 제185회 학술대회 예정일은 2019년 3월 23일
(토)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새끼 서 발>과 <켈을란(Keloğlan) 이야기>에 나타난

한·터 설화 속 바보 형상의 보편성 연구*

손영은(Youngun Son)**

조홍윤(Hongyoun Cho)***

메르베 카흐르만(Merve Kahriman)****

1. 서론

‘바보 이야기’는 세계 어느 민족의 이야기장에서도 대표적인 이야기 유형의 하나로써 자리 매김하고 있는 바, 이는 ‘바보’의 희극적 형상이 지닌 서사적 힘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바보 형상이 지닌 서사적 힘은 무엇인가. 일차적으로는 바보라는 대상을 확 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 안정감이다. 인간은 특정 대상을 타자화 함으로써 집단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스스로의 주체성을 확인 받는 것에 강한 쾌감과 안정을 느끼는데, 바보 이야기야말로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크게 충족시켜줄 수 있는 매체인 것이다.¹⁾ 이에 바보 이야기의 향유자들은 어리석고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일관하는 주인공을 비웃음의 대상으로 삼아 스스로의 정상성과 주체성을 확인하고 즐거움과 안정감을 얻는다. 이것이 모든 민족의 이야기 문화에서 바보 이야기가 대표성을 띠게 되는 하나의 이유이다. 이러한 점만을 고려하면 바보 이야기는 인간이 타자에 대한 폭력성을 분출하기 위한 하나의 배설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바보 성공담’으로 구분할 수 있는 하위 유형의 존재는 바보 이야기가 지닌 또 다른 가능성을 시사한다.²⁾ 이 유형의 이야기는 대개 비정상적이고 어리석은 존재로 여겨지는 주인공이 주변의 조롱에 아랑곳없이 자신의 행동방식을 고수하다가 그로 인해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 서사적 흐름을 지니고 있다. 이는 곧 ‘정상적인 것’에 대한 사회의 통념을 전복시킴으로써 ‘진정한 인간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렇다면 바보 이야기는 우리가 ‘상식’이나 ‘통념’, ‘정상성의 환상’ 등에 포획되어 간과해버리고 마는 여러 가지 삶의 가능성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데 그 본연의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보면 각 민족이나 국가 별 바보 이야기의 전형은 단순한 소화(笑話)로서 바보의 어리석은 실패를 이야기하는 유형이 아니다. 러시아를 대표하는 바보 이야기인 <바보 이반>이 그러하거니와 본고에서 이야기할 터

* 이 연구는 2018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해외한국학지원사업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AKS-2018_R42).

** 터키 국립 이스탄불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강의교수(T.C İstanbul Üniversitesi Kore Dili ve Edebiyatı A.B.D. Öğr.Gör.)

*** 터키 국립 이스탄불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강의교수(T.C İstanbul Üniversitesi Kore Dili ve Edebiyatı A.B.D. Öğr.Gör.)

**** 터키 국립 이스탄불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전임연구원(T.C İstanbul Üniversitesi Kore Dili ve Edebiyatı A.B.D. Arş.Gör.)

1) 바보의 타자화를 통한 안정감의 실현에 대하여, 손영은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사람들이 내 부에 존재하는 낯익은 타자의 존재를 상기하고 재생산 하는 것은 그들의 일체감을 재고하여 안정감을 얻기 위한 방편이다(손영은, 『사물성의 맥락에서 본 도깨비와 바보 설화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7, 208~209쪽).”

2) 이강엽은 바보 인물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성공을 거두는 이야기 유형을 ‘바보행운담’으로 명명한 바 있다(이강엽, 『바보행운담과 삶의 진정성』, 『열상고전연구』 24, 열상고전연구회, 2006, 101~131쪽). 그러나 ‘바보행운담’이라는 명명은 바보 인물의 성공이 그 자신의 능력이 아닌 행운에 의해 주어졌다는 인식을 내포한 것인 바, 그러한 시각은 바보 인물의 성공에 그 자신의 존재성이 관여한다는 본고의 시각과 차이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에 해당하는 바보 이야기 유형을 ‘바보 성공담’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키의 대표 설화 <켈올란(Keloğlan) 이야기> 또한 그러한 바보 성공담 유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켈올란 이야기>에서 주인공 켈올란은 대머리, 촌스러운 옷차림, 비정상적 행동 등을 통해 그야말로 ‘보통 미만’의 인물 형상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이야기 속에서 그는 자신의 비루한 인물 형상에 대비되는 최고의 성공을 거두는 과정으로 그의 이야기를 만들어간다. 이는 터키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구전 설화이며, 주인공인 켈올란 또한 터키인 누구나 좋아하는 국민캐릭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터키 현지에서는 현재까지도 <켈올란 이야기>를 모은 이야기책이 수없이 출간되고 있으며, 다수의 영화로 제작되거나 TV 만화 영화 시리즈로 거듭 제작되어 방영되고 있다. 말 그대로 단순히 ‘터키를 대표하는 바보 이야기’가 아닌 ‘터키를 대표하는 이야기’로서 <켈올란 이야기>가 지닌 위상을 실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2017년에는 다양한 문헌에 수록된 <켈올란 이야기>의 여러 자료를 묶어 한국어로 번역된 책이 소개되기도 하였으나 아직 본격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³⁾

한국의 바보 이야기 중에서 그와 같은 전복적 바보 성공담의 전형을 찾자면, <새끼 서 발>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 속에서 심각한 게으름으로 인해 경원시 되는 주인공은 ‘무능력’과 ‘결여된 인간성’의 표상과 같다. 것처럼 누구도 가치 있는 인간이라 여기지 않던 그는, 마찬가지로 누구도 가치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은 서 발 길이의 새끼줄을 통해 최고의 성공을 거둔다. ‘가치에 대한 인식의 전복’, ‘가치 있는 인간성에 대한 인식의 전복’이 그 서사적 의미의 큰 맥락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새끼 서 발>은 터키의 <켈올란 이야기>와 같이 한국을 대표하는 바보 이야기로서의 위상을 지녔다고 말할 수 없다. 구비전승의 이야기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는 터키와 달리 현실주의라는 강력한 이데올로기의 세례를 받은 한국의 향유자들이 바보 이야기를 그저 ‘우스운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 그로 인해 몇몇 연구자들을 제외한 대개의 설화 연구자들조차도 바보 이야기의 궁극적 가치에 대해 궁구하지 않았던 상황에 기인한 것이 아닐까 한다.⁴⁾

3) 하티제 쿠프올루 튀르코쥬 외, 『터키민담 켈올란 이야기』, 민속원, 2017.

4) 그간 <새끼 서 발>에 대한 연구는 설화 유형론적 측면에서 여러 이야기 중 하나로 언급된 것이 대부분인데, 그러한 연구로는 조희웅, 「한국의 형식담」, 『한국학논총』 3,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0, 221~244쪽; 이강엽, 「바보설화의 전통과 현대적 변모 양상」, 『열상고전연구』 15, 열상고전연구회, 2002, 327~357쪽; 이강엽, 「바보행운담과 삶의 진정성」, 『열상고전연구』 24, 열상고전연구회, 2006, 101~131쪽; 이강엽, 「바보설화에 나타난 웃음의 의미와 기능」, 『열상고전연구』 32, 열상고전연구회, 2010, 337~368쪽; 이흥우 외, 「한국설화의 분류에 관한 제언」, 『겨레어문학』 52, 겨레어문학회, 2014, 93~125쪽; 이강엽, 「바보설화에서 바보를 보는 시각과 공생의 문제」, 『구비문학연구』 51, 한국구비문학학회, 2018, 37~74쪽 등이 있다. 이 중 <새끼 서 발>에 대해 의미 있는 언급이 이루어진 것은 이강엽의 논의인데, 그는 <새끼 서 발>에 나타난 교환의 연쇄에 대하여 하찮은 사물이 교환 연쇄를 통해 크고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는 과정이 눈덩이가 구르며 커지듯 웃음을 키워가며(2010), 이러한 물건의 연속적 교체가 뜻밖의 행운을 몰아오는 틀로 작용하는 맥락이 향유자들로 하여금 삶의 유연성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2006). 이는 <새끼 서 발>의 서사가 지닌 의의에 어느 정도 접근하였다는 성과가 있지만 <새끼 서 발>의 서사 자체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이라 할 수는 없으며, 그만큼 추상적인 차원의 구명이 이루어졌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 외 문학치료학적 관점에서 정은채, 「구비설화에 나타난 자녀서사의 어머니」, 『문학치료연구』 6, 한국문학치료학회, 2007, 231~251쪽; 김정애, 「학교 부적응 학생 진단을 위한 작품서사 탐색과 문학치료프로그램 설계」, 『고전문학과 교육』 30,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5, 341~379쪽 등에 <새끼 서 발>이 언급 되었으나, 이들 연구 또한 <새끼 서 발>의 서사 자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유일하게 <새끼 서 발>에 대한 작품론적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조은상, 「설화 <새끼 서 발>에 나타난 과장과 허언의 심리적 의미와 효용」, 『문학교육학』 47, 한국문학교육학회, 2015, 153~190쪽인데, 주인공의 형상을 대상관계이론에 따른 의식 발달상의 ‘과대 자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서사 속 주인공이 보여주는 성공적 과대 자기의 발현이 향유자들의 심리적 효용으로 이어지는 맥락을 구명한 것이다. 이는 심리적 효용 측면에서 <새끼 서 발>이 지닌 가치를 구명한 의의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직접적인 현장 조사를 통해 수집한 <켈올란 이야기> 자료를 대상으로 이야기 속 바보 형상이 함의한 인간 삶의 문제와 의의를 탐색하고, 이를 <새끼 서 발>에 비교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한·터 설화 속 바보 형상이 내포한 보편적 문제의식과 그 해답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작게는 한국의 <새끼 서 발>이 지닌 서사적 의의를 온전히 구명하고 한국의 대표 바보 설화로서 <새끼 서 발>을 위시한 일련의 바보 성공담 유형 이야기가 지닌 위상을 재고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크게는 세계의 바보 이야기 속 바보 형상이 지닌 보편적 의의와 가치를 가늠케 하고 바보 이야기의 궁극적인 존재 의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2. 터키의 <켈올란 이야기> 속 바보 형상이 내포한 인간 삶의 문제

본 연구에서는 <켈올란 이야기>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 바, 대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있었다. 실제적인 이야기 원자료의 조사가 일부 민속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들이 다듬어낸 이야기가 문헌으로 출간됨으로써 구비문학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 터키 구비문학 연구의 상황이다. 직접 조사의 방식을 취하지 않고는 연구자의 사견이 개입되지 않은 원자료를 대상 자료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터키 전역을 서북부 이스탄불(Istanbul), 동북부 흑해지역, 중부 아나톨리아(Anatolia) 지역, 서남부 지중해 지역 등 분쟁지역인 동남부를 제외한 네 권역으로 나누어 <켈올란 이야기>에 대한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고 총 23편의 자료가 채록되었다.⁵⁾

5) 조사된 자료의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흔쾌히 터키어 구술 자료의 전사와 한국어로의 1차 번역을 맡아준 이스탄불대학교 한국어문학과와 여러 제자들에게 깊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1. Nuray Urhan(여, 1959년생), <켈올란과 형제>, Şişly/İstanbul, 조사일시: 2018.10.27. 14:00~15:30, 조사자: 조홍윤, 손영은.
2. Nuray Urhan(여, 1959년생), <켈올란의 특징>, Şişly/İstanbul, 조사일시: 2018.10.27. 14:00~15:30, 조사자: 조홍윤, 손영은.
3. Sibel Yegül(여, 1982년생), <켈올란의 특징>, Şişly/İstanbul, 조사일시: 2018.10.27. 14:00~15:30, 조사자: 조홍윤, 손영은.
4. Sibel Yegül(여, 1982년생), <켈올란과 도둑>, Şişly/İstanbul, 조사일시: 2018.10.27. 14:00~15:30, 조사자: 조홍윤, 손영은.
5. Sibel Yegül(여, 1982년생), <켈올란과 공주>, Şişly/İstanbul, 조사일시: 2018.10.27. 14:00~15:30, 조사자: 조홍윤, 손영은.
6. Sibel Yegül(여, 1982년생), <켈올란과 새장 속의 괴물>, Şişly/İstanbul, 조사일시: 2018.10.27. 14:00~15:30, 조사자: 조홍윤, 손영은.
7. Aysema Karadağ(여, 1991년생), Meryem Kahrıman(여, 1997년생), Nursel Kahrıman(여, 1971년생), <켈올란의 특징>, Talas/Kayseri, 조사일시: 2018.11.30. 20:45~22:00, 조사자: 조홍윤, 손영은, Merve Kahrıman.
8. Aysema Karadağ(여, 1991년생), <공주와 결혼하게 된 이유>, Talas/Kayseri, 조사일시: 2018.11.30. 20:45~22:00, 조사자: 조홍윤, 손영은, Merve Kahrıman.
9. Aysema Karadağ(여, 1991년생), <켈올란과 달의 딸(Ay kız)>, Talas/Kayseri, 조사일시: 2018.11.30. 20:45~22:00, 조사자: 조홍윤, 손영은, Merve Kahrıman.
10. Aysema Karadağ(여, 1991년생), <켈올란과 도둑들>, Talas/Kayseri, 조사일시: 2018.11.30. 20:45~22:00, 조사자: 조홍윤, 손영은, Merve Kahrıman.
11. Meryem Kahrıman(여, 1997년생), <켈올란과 마법의 식탁>, Talas/Kayseri, 조사일시: 2018.11.30. 20:45~22:00, 조사자: 조홍윤, 손영은, Merve Kahrıman.
12. Nursel Kahrıman(여, 1971년생), <켈올란과 도둑들>, Talas/Kayseri, 조사일시: 2018.11.30. 20:45~22:00, 조사자: 조홍윤, 손영은, Merve Kahrıman.
13. Asiye Öksüz(여, 1969년생), <켈올란과 견장>, Alanlı/Samsun, 조사일시: 2018.12.06. 13:00~14:00, 조사자: 조홍윤, 손영은, Merve Kahrıman.
14. Fatma Aksu(여, 1975년생), <켈올란과 공주>, Alanlı/Samsun, 조사일시: 2018.12.06. 13:00~14:00, 조사자: 조홍윤, 손영은, Merve Kahrıman.
15. Meryem Nebioğlu(여, 1974년생), <켈올란의 견장증>, Alanlı/Samsun, 조사일시: 2018.12.06.

시간과 재원의 한계로 터키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매우 한정적인 인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기에 터키에서 전승되는 다종다양한 <켈올란 이야기>의 전모를 드러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켈올란 이야기>가 지닌 공통적 특징, 주인공 켈올란이 지닌 인물 형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었다. 확인된 바, <켈올란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 유형으로 한정 할 수 없는 다양한 이야기 유형의 총체라 할 수 있는데, <켈올란과 공주>, <켈올란과 40인의 도둑>, <켈올란과 괴물> 등 터키 전국에 공통적으로 전승되고 있는 전형적 유형이 있는 반면, <켈올란과 마법의 식탁>, <켈올란의 건망증> 등 지역마다 주로 전승되는 이야기 유형이 따로 존재하기도 한다.⁶⁾

다양한 유형에 따라 주인공인 켈올란의 인물 형상도 다양하게 표현된다고 하는데, 한 제보자에 의하면 어떤 경우에는 단순한 바보로 표현되기도 하고 반대로 매우 똑똑한 인물로 형상화되기도 한다.⁷⁾ 이러한 증언에 혼란을 느낀 연구자들이 켈올란이 것처럼 긍정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무엇인지 묻자 동석해 있던 또 다른 제보자가 한국어로 보충 설명을 해주었는데, “보통 가난하고 못생긴 남자, 바보에 무능력한 남자인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가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행동 때문에 ‘좋은 사람’으로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즉흥적인 이야기 구연이 일상화되어 있는 터키에서는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때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구연하면서 그 주인공의 이름을 켈올란으로 지칭하곤 한다고

13:00~14:00, 𠄎𠄎: 조홍윤, 손영은, Merve Kahrıman.

16. Meryem Nebioğlu(여, 1974년생), <켈올란의 특징>, Alanlı/Samsun, 𠄎𠄎일시: 2018.12.06. 13:00~14:00, 𠄎𠄎: 조홍윤, 손영은, Merve Kahrıman.

17. Fatma Şafak(여, 1960년생), <켈올란의 건망증>, Çatkaya/Samsun, 조사일시: 2018.12.06. 16:30~17:30, 조사자: 조홍윤, 손영은, Merve Kahrıman.

18. İnci Arslan(여, 1979년생), <켈올란의 건망증>, Çatkaya/Samsun, 조사일시: 2018.12.06. 15:00~16:00, 조사자: 조홍윤, 손영은, Merve Kahrıman.

19. Fatih Arslan(남, 1981년생), <켈올란과 40인의 도둑>, Çatkaya/Samsun, 조사일시: 2018.12.06. 15:00~16:00, 조사자: 조홍윤, 손영은, Merve Kahrıman.

20. Azice Taşkın(여, 1988년생), <똑똑한 켈올란>, Çatkaya/Samsun, 조사일시: 2018.12.06. 15:00~16:00, 조사자: 조홍윤, 손영은, Merve Kahrıman.

21. Azice Taşkın(여, 1988년생), <켈올란 이야기의 특징>, Çatkaya/Samsun, 조사일시: 2018.12.06. 15:00~16:00, 조사자: 조홍윤, 손영은, Merve Kahrıman.

22. Lavza Arslan(여, 2009년생), <켈올란의 건망증>, İlkadım/Samsun, 조사일시: 2018.12.06. 20:00~20:30, 조사자: 조홍윤, 손영은, Merve Kahrıman.

23. Zemre Emal Taşkın(여, 2009년생), <켈올란과 보석나무>, İlkadım/Samsun, 조사일시: 2018.12.06. 20:00~20:30, 조사자: 조홍윤, 손영은, Merve Kahrıman.

6) 그 중에서도 흑해 연안 지역의 <켈올란 이야기>가 두드러지는 특수성을 보였는데, 단형의 소화(笑話)나 짧은 말장난을 즐기는 이 지역의 이야기 향유 전통상, <켈올란의 건망증>이라는 짧은 유형의 구연이 주로 이루어졌다. 이 유형에서는 어머니의 심부름을 나선 켈올란이 가져와야 할 물건을 기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다가 결국은 잊어버리는 과정이 전개되는데, 간단한 것도 기억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켈올란의 모습이 웃음을 자아낸다.

7) 켈올란의 성격은 이야기마다 달라요. 어느 이야기에서는 마를 정도로 날씬하고 키가 작고 바보인 반면에 또 어떤 이야기에서는 잘 생기고, 키가 크고, 부지런하고, 교활하고, 똑똑해요. 어느 이야기에서는 아주 가난한 반면에 또 다른 민담에서는 부자예요. 대부분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어요.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는 꼭 ‘악(惡)’을 만나요. 그렇지만 켈올란은 끝까지 노력하고 ‘선(善)’을 얻어요. 대부분의 이야기에서 성공하는 사람이지요.

Keloğlan'ın karakteri masallara göre değişiyor. Bazı masalarda çelimsiz, zayıf, kısa boylu ve aptal görünüyor. Bazı masalarda ise yakışıklı, boylu poslu, kurnaz, çalışkan, yiğit görünüyor. Bazen yoksul bazı masalarda ise zengin görünüyor. Bir annesi var, onunla birlikte yaşıyor. Her zaman masallarında önce kötülüğü tadıyor, ondan sonra ordan çıkıp sorunlarla baş edip sonuca ulaşıyor. Aslında genele baktığımızda başarılı bir insan(Sibel Yegül(여, 1982년생), <켈올란과 도둑>, Şişli/İstanbul, 조사일시: 2018.10.27. 14:00~15:30, 조사자: 조홍윤, 손영은).

하였다.⁸⁾ 그야말로 터키에서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켈올란’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바, 켈올란을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가 매우 다양한 유형으로 전승되고, 다양한 모습의 켈올란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처럼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켈올란이지만 그를 표현하는 일반적 이미지도 존재한다. 대부분의 제보자들이 ‘켈올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서 ‘대머리’, ‘못생긴 얼굴’, ‘촌스러운 옷’, ‘가난뱅이’, ‘게으름뱅이’, ‘바보’, ‘무능력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바보 인물에 대한 인물상을 표현하는 방식은 주로 정상적인 사람에 비하여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내세우는 방향성을 취하게 되는데,⁹⁾ 켈올란을 대상으로 한 위와 같은 표현들은 인물의 결여된 존재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바보 인물 묘사의 전형에 해당한다.



이처럼 정상에 비해 모자란 인물, 바보 인물로 제시되는 켈올란은 이야기 유형에 따라 자신의 바보다움을 끝까지 고수하여 웃음을 유발하기도 하고,¹⁰⁾ 보통사람과 다르기에 자연스럽게 발휘되는 돌발적 언행이나 비일상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 성공을 거두기도 한다.¹¹⁾ 그 중 전국적인 범위에서 전승되는 대표적 유형은 <켈올란과 공주>인데, 가난하고 무능력한 켈올란이 공주와의 결연을 꿈꾸며 비웃음을 사지만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뜻한 바대로 결연을 이루어내는 과정이 전개된다. 여러 편의 영화로 제작되었을 만큼 터키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서사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¹²⁾

- A. 옛날 가난한 집에 켈올란이 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그는 키가 작고 마른 대머리의 못생긴 남자였으며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게으름뱅이였다. 그런 켈올란에게 그의 어머니는 언제나 제발 일을 좀 찾으러 나가라고 잔소리를 하였다.
- B. 그 나라의 왕에게는 아이크즈(Aykız, 달의 딸)라는 이름의 공주가 있었다. 어느 날 공주가 병이 들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공주를 깨울 방법이 없음을 고심하던 왕은 공주의 병을 낫게 하는 이를 그녀와 혼인시키겠다고 선언했다.
 - B-1. 공주가 매일 울어서 걱정한 왕이 공주를 웃게 하는 남자와 그녀를 혼인시키겠다고 하였다.
 - B-2. 어머니의 잔소리를 피해 할 일 없이 돌아다니던 켈올란이 공주를 보고 한 눈에 반했다.
- C. 켈올란이 공주와 결혼하겠다고 길을 떠나려하자 주변 사람들 모두 비웃으며 말렸지만 그는 사람들의 조롱에 아랑곳없이 공주와 결혼하기 위해 왕을 찾아갔다.

8) 예를 들어요. 아이가 청소를 안 해요. 그러면 이야기해요. 옛날에 켈올란이, (웃음) [조사자: 아!] 남편한테 화나요. 또 그러면 이야기해요. [조사자: "옛날에 켈올란이" 하고?] 네! (일동 웃음, Nuray Urhan(여, 1959년생), <켈올란의 특징>, Şişli/İstanbul, 조사일시: 2018,10.27. 14:00~15:30, 조사자: 조흥운, 손영은.

9) 이강엽, 앞의 논문, 2018, 38쪽; 손영은, 앞의 논문, 68쪽.

10) <켈올란과 마법의 식탁>, <켈올란의 건망증> 유형이 이에 해당한다.

11) <켈올란과 공주>, <켈올란과 괴물>, <켈올란과 40인의 도둑> 유형이 이에 해당한다.

12) 모든 유형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좋겠으나 지면과 시간의 한계 상 본고의 논의는 <켈올란과 공주> 유형 자료들을 중심으로 하며, 다른 유형의 자료들은 보조적 차원에서 활용하도록 한다.

- D. 공주가 병이 든 것은 그녀를 얻어 왕이 되고자 했던 재상이 독을 먹인 탓이었는데 켈올란이 매일 양파 한 개와 타르하나 수프를 공주에게 먹이자 공주가 일어나게 되었다. (재상과의 지혜 대결이 추가되기도 함)
- D-1. 공주는 켈올란을 보자마자 그 모습이 너무 우스워 웃음을 터뜨렸다. (타르하나 수프를 들고 가서 먹이자 웃음을 터뜨리기도 함)
- D-2. 왕이 공주와의 혼인 조건으로 세 가지 문제를 제시하자 켈올란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냈다.

E. 켈올란은 공주와 결혼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와 주변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이 ‘모자란 인물’이 공주와의 결연이라는 성공을 거두게 되는 서사의 맥락은 무엇이며, 그러한 서사가 터키인들로 하여금 어떠한 공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최고의 이야기로 평가받도록 만들었는가. 이강엽은 바보 인물이 한편에서는 보통 사람에 못 미치는 결손 탓에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이를 수 없는 천진함 덕에 경탄의 대상이 되는 과정에 주목한 바 있다. 바보인물은 보통에 못 미치는 지력 탓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지만, 규범이나 관습 등에 매이지 않는 천진함 덕에 일반인이 풀 수 없는 문제를 도리어 쉽게 풀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똑똑함과 바보스러움의 전복이 이루어지며 이것이 ‘바보거울(Narrenspiegel)’이 되어 향유자들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바보 이야기의 효용이 될 수 있다고 본다.¹³⁾ 것처럼 켈올란의 형상이 지닌 힘 또한 그의 모자람이 도리어 정상성의 틀을 넘어서는 힘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똑똑함과 바보스러움의 전복’, 그에 따라 ‘조롱과 경탄의 전복’이 주는 카타르시스를 경험케 하고 정상성의 틀에 얽매어 살아가는 향유자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켈올란의 서사를 풀어내는 핵심 또한 그의 모자람이 ‘이루어내는 가치 전복의 과정에 있을 것이다.

이야기 초반 공주에게 반해서, 혹은 공주의 문제를 해결하면 공주와 혼인하도록 하겠다는 왕의 선언을 듣고 “공주와 결혼하려 가겠다.”고 선언하는 켈올란에게 주변인들의 반응은 한결 같다.

어느 날 켈올란이 어머니에게 “공주와 결혼하고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다.”라고 하자 어머니는 “니가 뭘데 공주와 결혼하겠다는 거야?”라고 하면서 야단을 쳤다. 켈올란은 “그 날은 꼭 올 겁니다, 어머니.”라고 하면서 집을 나섰다.¹⁴⁾

켈올란이 공주를 낮게 하려 궁으로 가겠다고 하니 마을 사람들이 비웃었다. “니가 뭘데 공주를 구할 수 있어? 못 하면 죽일 거야. 그러니 절대 궁으로 가지 마.”라고 했다.¹⁵⁾

인용문에 나와 있듯 “니가 뭘데?”라는 비웃음이 켈올란에 대한 주변인들의 반응이다. 가난하고 못생긴, 게으르고 무능력해서 아무 것도 하는 일 없이 어머니에 기대어 살아가는 켈올란이 자신들로서는 꿈도 꾸지 못할 지고한 신분의 공주와 결혼하려 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분명 자신들에 미치지 못하는 인간이다. 자신들에게도 불가능한 일, 그에게는 결코 허락될 수 없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켈올란은 공주와의 결혼을 꼭 이루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길을 떠난다. 켈올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 가’일뿐, ‘원하는 것을

13) 이강엽, 앞의 논문, 2018, 38~39쪽.

14) Annesine bir gün demiş ki “Ben Padişah damadı olacağım.”. Annesi “Ah oğlum padişah damadı kim sen kimsin?”, “Yok olacağım.” diye izin alıyor annesinden, çıkıyor diyar diyar gidiyor(Fatma Aksu(여, 1975년생), <켈올란과 공주>, Alanlı/Samsun, ʘ사일시: 2018.12.06. 13:00~14:00, ʘ사자: 조홍윤, 손영은, Merve Kahırman).

15) Keloğlan da ben kesin iyileştiririm demiş herkes Keloğlana gülmüş sen aptalsın demişler, nasıl yapacaksın demişler, yapamazsın demişler(Sibel Yegül(여, 1982년생), <켈올란과 공주>, Şişli/İstanbul, 조사일시: 2018.10.27. 14:00~15:30, 조사자: 조홍윤, 손영은).

이루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처지에 있는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자신의 모자람에 얽매이지 않고 모자란 그대로 원하는 것을 향해 올곧게 나아가는 것, 켈올란이 지닌 바보 형상의 일면이다.¹⁶⁾

이와 같은 켈올란의 모습은 그의 서사가 성공으로 귀결되도록 하는 일관된 원리로 작용한다. 이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 과정이라 할 잠이든 공주의 치료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명이가 진단을 해도, 어떤 명약을 써도 고치지 못한 공주에게 그가 사용한 처방은 겨우 양파 한 개, 타르하나 수프(Tarhana Çorbasi) 한 그릇일 뿐이다.

그때에 공주와 결혼해 왕이 되고 싶었던 재상이 있었다. 그 재상은 늘 공주에게 약을 먹이고 재웠다. 켈올란은 궁에 있는 동안 매일 양파와 타르하나 수프를 만들고 공주에게 먹였다. 나날이 공주가 나아져서 재상이 약을 먹였다는 사실이 그러났다.¹⁷⁾

특별한 병에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에 따라 정상적인 인간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은, 지극히 정상적인 방식으로 공주의 치료를 시도했던 것이다. 그러나 바보 켈올란에게는 당연하게도 특별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지식이나 비결이 없었다. 공주를 치료해야 한다는 문제 앞에서 그가 가진 수단이라고는 가장 기초적인 민간요법뿐이었다. 신체의 자체적인 해독 작용을 돕는 양파 한 개, 그리고 민간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영양식인 타르하나 수프가 그것이다.¹⁸⁾ 자신에게 특별한 수단이 없다는 것에 좌절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대로 정성을 다했던 것,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비루한 민간요

16) 원하는 대로 일관하여 성공을 거두는 켈올란의 형상은 <켈올란과 형제>라는 자료에서도 두드러진다. 이 이야기에서 켈올란은 동생과 함께 나무 위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들이 있는 나무 아래에 40인의 도적떼가 모여들게 되었다.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하는 상황임에도 켈올란은 급하다며 도둑들 머리 위에 소변을 보고 등에 진 땀들이 무겁다며 나무 아래로 던져 버린다. 이처럼 상황이 아랑곳 없이 원하는 대로 행동한 것이 뜻밖에도 성공적인 결말로 이어지는데, 난데없는 물줄기와 굉음에 놀란 도적떼가 지니고 있던 재물과 말을 팽개쳐 두고 도망가 버린 것이다.

Daha sonra akşam olunca bir büyük çınar ağacının altında uyuyalım demişler. Keloğlan hayır ben yukarıda ağaca çıkıp orada uyuyacağım demiş. O ağır taş ile birlikte ikisi ağaca çıkmışlar ve orada uyumuşlar. Gece karanlık olduktan sonra çok büyük bir gürültü, duman, kalabalık insan gelmiş. Aşağıda ateş yakmışlar ve oturmuşlar. Keloğlan ve abisi bunları görünce korkmuşlar yukarıda. Bunlar çok büyük bir hırsız grubu imiş. Ağaçtan inememişler ama Keloğlanın çiši gelmiş. Ağaçtan aşağıya doğru çişini yapmış. Bu haremi grubu-hırsız grubu aa gökten güzel şeyler-bereket yağıyor diye düşünmüşler. Daha sonra gökyüzünde bir şeyler yok ama aa bu bize olan iyi bir şey diye düşünmüşler. Daha sonra zaman geçmiş bu defa aa demiş Keloğlan benim sırtım çok ağrıdı, çok yoruldu taş bırakacağım. Taşı da aşağıya bırakınca bu defa haremiler kıyamet kopuyor, dünya kötü, bir şeyler oluyor dünyada, biz ölücez diyerek bütün silahlarını, paralarını, altınlarını ve de hayvanlarını-katırlarını bırakıp kaçmışlar. Böyle olunca Keloğlan ve kardeşi aşağıya inmiş. Bütün o hırsızlardan kalan malzemeleri toplayıp katırlara yükleyip annelerinin yanına eve dönmüşler. Ve bütün bu başından geçenleri annelerine anlatıp yanında getirdikleri paralarla altınlarla da mutlu bir şekilde yaşamışlar(Nuray Urhan(여, 1959년생), <켈올란과 형제>, Şişly/İstanbul, 조사일시: 2018.10.27. 14:00~15:30, 조사자: 조홍윤, 손영은).

17) O sırada padişahın kötü kalpli bir veziri varmış. Vezir sürekli kıza ilaç verip onu uyutuyormuş. Asıl amacı hem kızla evlenmek hem de krallığı ele geçirmekmiş. Keloğlan sarayda kaldığı süre içinde sürekli kıza soğan ve tarhana çorbasi yapmış. Böylelikle Kızda kendine gelmeye başlamış ve sonunda iyileşmiş. Ayrıca vezirinde kötü ilaç verdiğini ortaya çıkarmış(Sibel Yegül(여, 1982년생), <켈올란과 공주>, Şişly/İstanbul, 조사일시: 2018.10.27. 14:00~15:30, 조사자: 조홍윤, 손영은).

18) 타르하나 수프(Tarhana Çorbasi)의 주재료인 타르하나(Tarhana)는 요구르트를 보릿가루와 섞어 반죽해 말린 것으로 겨울철 장기저장식품이다. 이것을 물과 함께 끓이고 고추기름을 올려 만드는 것이 타르하나 수프인데, 평범한 음식이지만 필수 영양소가 고루 함유된 터키 전통의 건강식이다.

법을 특별한 존재의 특별한 병에 망설임 없이 사용할 수 있었던 것,¹⁹⁾ 이것이 독에 상하고 독한 명약들에 훼손되었던 공주의 몸을 자연스러운 회복으로 유도하였던 것이다.

현실의 삶에 있어서 인간은 때때로 매우 크고 특별하게 여겨지는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 일반적인 인간은, 이야기 속에서 그러하듯이, 그와 같은 특별한 문제를 풀 수 있는 특별한 해법을 찾기 위해 애를 쓰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에게 특별한 수단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문제 해결을 포기하기도 한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이 스스로의 모자람을 자책하며 문제로 인한 고통을 배가시키는 모습을 상기할 때 켈올란이 보여주는 모습은 의미심장하다. 일생을 좌우할 크나큰 문제 앞에서 자신의 모자람을 자책하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모자람 그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움직여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 앞을 가로막는 삶의 문제들을 풀어갈 가장 기본 된 자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²⁰⁾

이와 같은 켈올란의 모습은 울기만하는 공주를 웃게 하는 시험에 임하는 내용의 각편에서도 일관된다. 공주의 웃음을 위해 정성스레 타르하나 수프를 준비하거나, 특별한 대책 없이 그 앞에 나서는 것만으로 켈올란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조사자: 타르하나 수프가 건강에 좋은 건가요?] (청중: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어떤 이야기에는 안 웃는 공주가 있어요. 공주 웃게 하면 결혼시켜준다고 왕이 말해요. 그래서 켈올란이 타르하나 수프만 들어서 공주한테 가요. 수프 먹으니까 공주가 웃었어요.) [조사자: 수프 먹고 왜 웃어요?] (청중: 너무 맛있고 기분이 좋아져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조사자: 아!] (청중: 또 어떤 이야기는 웃길려고 찾아가요. 켈올란 보자마자 공주 웃어요.) [조사자: 왜 보자마자 웃어요?] (청중: 보면 웃겨요!) (일동 웃음) [조사자: 아, 너무 웃기게 생겼어요?] 네! (일동 웃음)²¹⁾

이야기 속 공주는, 왕과 마찬가지로, 말하자면 인간 사회의 정상성을 표상하는 지위에 있는 인물이다. 만인의 본이 되는 자리에 선 일말의 모자람도 허락되지 않는 존재,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항상 울고 있는 공주의 모습은 어쩌면 ‘정상성의 굴레’에 얽매어 고통 받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다. 실제로 모든 상황과 관계 속에서 일말의 모자람이 없는 인간이란 존재할 수 없다.²²⁾ 그럼에도 언제나 타인과의 관계 맺음을 통해 자기 자리를 정립해가

19) 켈올란이 그와 같은 치료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은 그가 민간요법에 해박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그는 단순히 어머니에게 들은 유일한 치료법을 망설임 없이 공주에게도 적용했을 뿐이다. 그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켈올란은 어머니께 배운 치료 방법을 찾으러 산속으로 갔다. 산속에 있는 풀을 따고 섞을 준비를 했다. 준비된 재료를 하루 종일 섞었다.”

Evlerinin orada dağ eteklerinde otlar varmış. Otları toplamaya gitmiş. O otlardan çeşit çeşit otlar bulup annesinin de anlattığı kadarıyla toplayıp bir karışım elde etmiş(Azize Taşkın(여, 1988년생), <똑똑한 켈올란>, Çatkaya/Samsun, 조사일시: 2018.12.06. 15:00~16:00, 조사자: 조홍윤, 손영은, Merve Kahrıman).

20) 켈올란은 바보예요.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꼭 성공해요. 부자 되고 공주하고 결혼해요. 이야기를 들으면, 이걸 사람들에게 그, 굶, 꿈? 희망을 주는 거예요(Nuray Urhan(여, 1959년생), <켈올란의 특징>, Şişly/İstanbul, 조사일시: 2018.10.27. 14:00~15:30, 조사자: 조홍윤, 손영은).

켈올란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켈올란이 해야 할 일을 끝까지 꼭 한다는 것입니다. 하겠다고 하면 꼭 합니다. 켈올란 이야기는 그런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Keloğlan ile ilgili en önemli şey herhalde söylediği her şeyi yapması, bütün masallarda kafasına koyduğunu yapması ve bunu yaparken de diğer insanlara ders vermesi ama yaptığı şeylerin birçoğunu bilinçli de yapmıyor(Meryem Nebioğlu(여, 1974년생), <켈올란의 특징>, Alanlı/Samsun, 조사일시: 2018.12.06. 13:00~14:00, 조사자: 조홍윤, 손영은, Merve Kahrıman).

21) Sibel Yegül(여, 1982년생), <켈올란과 공주>, Şişly/İstanbul, 조사일시: 2018.10.27. 14:00~15:30, 조사자: 조홍윤, 손영은.

22) 이러한 측면에서 이강엽은 ‘가짜바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사람이 특정한 이유로 바보로 여겨지는 경우를 말하며, 그러한 인물이 바보로 가능하게 하는 상황이나 환경을 떠나면 더 이상 바보가 아니게 됨을 말한다(이강엽, 『바보설화의 웃음과 의미 탐색』, 박이정, 2011, 48쪽).

며 살아가게 되는 인간은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서든 남보다 못한 일면을 보여 열등하거나 이질적인 대상으로 낙인찍히는 상황을 기피하게 된다. 그렇게 언제 어디에서나 모자람이 없는 자기를 내보이려 애를 쓸수록 그에 미치지 못하는 실제의 자기에 좌절하며 고통 받게 되는 것. 정상성의 굴레란 그와 같이 '실제로는 존재할 수 없는 정상성에 대한 환상', '정상이란 이름의 이상으로 실제의 자기를 엮어매는 자가당착'일 것이다. 것처럼 정상성의 굴레에 엮매어 있던 공주는 모자람과 비정상성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켈올란을 접함으로써 엄청난 심적 해방감을 맛볼 수 있었을 것이다.

일반적인 시각에서, 공주를 달래기 위해 귀중한 재물을 바치는 못사람의 모습이 정상이라면, 흔하디흔한 수프 한 그릇을 내미는 켈올란의 모습은 명백한 비정상이다. 공주와의 대면이라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위해, 있는 것 없는 것을 모두 동원한 치장으로 실체가 아닌 아름다움을 자기 위에 덧칠하는 것이 보통이고 정상이라면, 선물하나 없는 빈손에 남루한 옷차림으로 못생긴 자기 얼굴을 그대로 들이미는 켈올란의 모습은 비정상이 분명하다. 그러나 스스로의 모자람에 구애됨 없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삶의 시험대에 모자란 그대로의 자신을 올려놓는 켈올란의 모습에서 공주는 자신이 진정으로 꿈꾸던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로써 그녀는 자신을 엮어맨 정상성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자유로이 웃음 지을 수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모자람에 구애됨 없이 원하는 것을 향해 모자란 그대로 나아간다. 삶의 문제를 대하는 자세로서 바보 켈올란을 성공으로 이끄는 원리는 그러하거니와, 공주와의 혼인을 위해 왕이 제시한 문제에 도전하는 켈올란의 모습에서는 그의 모자람이 정상성의 틀을 넘어설 수 있는 원리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혜 대결을 통한 왕과 켈올란의 내기란, 결국 현자와 우자의 대립, 왕으로 표상되는 정상성과 켈올란으로 표상되는 비정상성의 대립 구도를 구축하는데, 왕이 제시한 문제가 정상성의 한계를 함의한다면 켈올란의 해답이 비정상성의 가능성을 함의한다고 볼 수 있다. 각편들마다 세 가지 문제가 제시되는데, 모든 문제와 해답에서 나름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두 가지 문제에 그와 같은 대립과 함의가 분명하게 드러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첫 번째 문제는, 걸보기에 다른 점이 없는 독이 든 잔 네 개 중에서 가장 강한 독이 들어있는 것을 찾는 것이다. 이에 켈올란은 하나의 잔에 다른 세 잔에 든 독을 모두 부어 넣어서 확실하게 강한 하나의 독배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한다.

네 개의 잔 안에 독을 쏟고 “가장 독한 독이 어느 잔에 들어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맞는 답을 찾지 못했다. 이에 켈올란은 네 잔에 있는 모든 독을 한 잔에 쏟아 붓고 “가장 독한 독은 바로 이 잔에 있다.”고 하였다.²³⁾

전통적으로 인간이 지식을 축적해온 주된 지적 탐구의 방법은 비분절적 세계를 인간의 인지로서 이해 가능한 단위로 구별하고 비교하여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그렇다면 네 개의 잔이라는 구별된 카테고리에 각각 담겨있는 내용물의 차이를 비교하는 문제는 시험 대상자의 지적 탐구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무도 맞는 답을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 네 개의 잔과 그 안에 담긴 독에 나누어 식별할 수 있는 외적 차이가 없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독성을 확인하겠다고 직접 마셔볼 수도 없는 노릇, 결국 왕은 정상적인 지적 탐구의 방법으로서 결코 풀어낼 수 없는 문제를 낸 것이다. 그러한 문제를 낸 왕의 존재는 지적 탐구

23) 4 bardağa zehir koyuyorlar ve padişah da “Bu zehri bulana kızımı vereceğim.” diyor. Ama kimse zehri bulamıyor. Ama Keloğlan buluyor. Keloğlan 4 bardağı da birleştirince Padişah da “İşte bu.” diyor(Fatma Aksu(여, 1975년생), <켈올란과 공주>, Alanlı/Samsun, ^첫일사: 2018.12.06. 13:00~14:00, ^첫사자: 조홍윤, 손영은, Merve Kahrıman).

의 영역에 있어 최고의 현자인 동시에 정상적인 지적 탐구의 틀이 지닌 한계를 표상한다. 이때 켈올란은 그러한 틀을 깨뜨림으로써 문제를 풀어낸다. 구별된 것을 비교하여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섞어 놓는 단순한 방법으로 답을 구해낸 것이다. 실상 지적 탐구라는 행위는 바보 켈올란의 삶과 인연이 없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세계와 사물을 이해하기 위해 그것을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비교하여 분석해야 한다는 사고의 틀 자체를 가지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문제를 총체적으로 인식하여 손쉽게 답을 도출해 낼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이는 현실의 식자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장면이다. 특정 분야의 지적 탐구에 깊이 천착하며 더 작은 단위로 구분 짓고 비교하여 분석하는 작업을 거칠수록, 스스로 쌓아올린 지식의 카테고리에 포획되어 버리는 위대한 학자들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제는 일반화된 나노 단위의 분석기술이 더 풍부한 지식의 향연을 만들어 내었지만, 그것이 그만큼 인간 삶의 행복에 기여하고 있는가하면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일 수는 없을 것 같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실상 우리가 읽기 편하게 나누어 놓은 카테고리별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불균일한 것들이 뒤섞여 거대한 하나의 총체를 이루고 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들은 보통 우리 인지의 틀 너머에서 몸집을 불리고 있기 마련이다. 우리가 삶을 이해하기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기준들, 상식, 통념, 도덕, 규범 등, 우리가 정상적인 것이라 말하는 인지의 틀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세계와 삶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켈올란은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해답을 통해서, 정상성의 틀에 기대어 세계와 삶을 인지하려 하는 우리에게 그 틀을 깨뜨려야만 세계와 삶의 진실한 총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왕이 제시한 두 번째 문제는 손을 대지 않고 자신을 물구나무세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에 켈올란은 왕의 머리 위에 거울을 가져다 대고 거울을 바라보게 하여 문제를 풀어낸다.

그 다음에 왕이 켈올란에게 두 번째 문제에 대해 물었다. “네가 나를 물구나무 세울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었다. 켈올란은 아이크즈가 들고 있는 손거울을 받아 뒤집어 왕에게 보여주었다. 거울 속에서 왕은 물구나무 서있었다. 왕은 “두 번째 문제도 맞았다.”라고 했다.²⁴⁾

손을 대지 않고 사람을 물구나무 세우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정상성의 극단과 한계를 표상하는 왕으로서, 두 번째 문제 또한 물리법칙이라는 정상성의 틀 안에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켈올란은 이번에도 물리법칙이라는 절대적 틀 자체를 벗어나 사고함으로써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손쉽게 해결한다. 단순히 시각을 바꾸는 것, 정상적 사고의 틀을 고수할수록 고정된 시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하고 그러한 한계를 넘어 자유로운 시각의 전환을 촉구하는 메시지이다. 이야기 속 왕이 그러했듯, 시각이 바뀌면 세계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 볼만한 것은 왕의 문제를 통해 음모의 주체인 재상과 켈올란의 지혜 경합이 이루어지는 각편이다. 이때 왕이 현자의 입장에서 정상성을 표상한다면, 경합에 참여한 재상은 ‘거짓된 지혜’, ‘거짓된 정상성’을 표상하게 된다. 거짓일 뿐이기에 왕의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지만, 이야기가 아닌 현실을 돌아보면 문제가 그리 녹록치 않음을 알게 된다. 우리 주변의 현실 속에서도 성취를 위해 타인을 속이거나 해를 입히는 행위를 지혜롭고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부당한 수단을 통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나 보이

24) Bundan sonra da Padişah ikinci soru soracağı için Keloğlan'a soru soruyor. “Beni ters çevirebilir misin?” diye soruyor. Keloğlan da Aykız'ın elindeki aynalı tarağı görüyor. Tarağı çevirince görüyor ki Padişah aşağı dönüyor. Padişah da “İkinci soruyu da bildin.” diyor (Fatma Aksu(여, 1975년생), <켈올란과 공주>, Alanlı/Samsun, ^첫발행일: 2018.12.06. 13:00~14:00, ^첫저자: 조홍윤, 손영은, Merve Kahrıman).

지 않은 채 눈에 보이는 성취를 이루어낸다면, 우리가 정상이라고 부르는 틀 안에서 그러한 부당함이 가려질 수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생각이다. 눈에 보이는 모자람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기는 만큼, 눈에 보이는 넘침을 마땅히 추구해야 할 정상성으로 오인함에 따른 것이다. 것처럼 재산, 학력, 직업, 지위 등, 내용이 아닌 포장에, 과정이 아닌 결과에 정상성을 부여하곤 하는 잘못된 정상성의 추구가 우리 사회의 이면에서 독소를 키워가고 있다. 재산의 존재는 그러한 관념이 지닌 위험성을 보여준다. 그와 같은 이가 왕이 되고 사회의 정상성을 표상하는 자리에 올라서게 된다면, 병들어 잠든 공주의 모습과 같이 사회의 미래를 만들어 갈 가능성 자체가 병들게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장황한 논의를 정리하자면, 켈올란은 자신의 모자람에 구애됨 없이 삶의 시험대 위에 모자람 그대로의 자신을 올려놓음으로써, 일반적 인지의 틀을 넘어서는 총체적 인지를 통하여, 자유로운 시각의 전환을 통하여 ‘현자와 우자의 전복’, ‘정상성과 비정상성의 전복’을 이루어내며 ‘거짓된 정상성의 추구’가 지닌 문제를 고발한다. 이로써 ‘진정한 지혜는 무엇인가?’, ‘진정 정상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여 향유자들이 그들의 삶을 바라보는 시야를 확장시키고 정상성의 굴레, 더러는 거짓된 정상성의 굴레에 얽매인 인간을 해방시킨다. 이로써 향유자들로 하여금 그를 따라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추동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켈올란의 바보 형상이 지닌 힘인 것이다.²⁵⁾

3. <켈올란 이야기>와의 비교를 통해 본 <새끼 서 발> 속 바보 형상의 함의

한국을 대표하는 바보 성공담 중 하나인 <새끼 서 발>은 여러 모로 터키의 <켈올란 이야기>와 견주어 볼 부분이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앞서 논의한 켈올란의 형상에 비추어 <새끼 서 발>의 주인공이 지닌 바보 형상의 함의를 탐색하고 그 서사적 의의를 드러내보고자 한다.

<새끼 서 발>은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총 24편이 수록되어 있다.²⁶⁾ 장황한 논의를 피하기 위해 잘 알려져 있는 내용으로 <새끼 서 발>의 서사를 간추리자면, 게을러 일을 하지 않아 집에서 쫓겨난 아들이 자신이 끈 서 발 길이의 새끼줄을 점점 더 큰 물건과 바꾸어가며 색시도 얻고 부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를 서사단락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²⁷⁾

- A. 한 집에 홀어머니와 아들이 살았는데 게을러서 나이 삼십이 넘도록 방에만 누워있던 아들은 어느 날 새끼 서 발을 꼬아들고 집을 나섰다.
- B. 집을 나온 아들은 새끼줄이 필요하다는 옹기장수를 만나 새끼줄을 주고 옹기를 받았다.
- C. 물동이를 깨뜨린 처녀를 만난 아들은 옹기를 주고 쌀 한 말을 받았다.
- D. 죽은 딸의 시신을 묻을 수 없어 울고 있는 노파를 만난 아들은 쌀을 주고 시신을 받았다.
- E. 부잣집 근처 우물가에 시신을 세워둔 아들은 그 집 처녀가 실수로 시신을 물에 빠뜨리자 자기 색시를 죽게 했으며 그녀를 대신 데리고 갔다.

25) 지금은 그가 못생기지 않은 귀엽고 똑똑한 아이라고 생각해요. 머리보다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바보처럼 행동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Şimdi çirkin değil sevimli olduğumu düşünüyorum ve akıllı olduğumu düşünüyorum. Ama sanırım insanları aklımdan çok kalbiyle etkilemek istediği için safça davranıyordu gibi geliyor şimdi bana. Şu anda öyle düşünüyorum(Meryem Nebioğlu(여, 1974년생), <켈올란의 특징>, Alanlı/Samsun, 조사일시: 2018.12.06. 13:00~14:00, 조사자: 조홍윤, 손영은, Merve Kahrıman).

26) <새끼 서 발>의 구체적인 자료 목록에 대해서는 조은상, 앞의 논문, 159쪽 참조.

27) 서사 단락은 완성도 높은 구연이 이루어진 김순이(여, 81), 길상면 설화 12, <새끼 서 발로 장가 든 이야기>, 『한국구비문학대계』 1-7, 275~281쪽의 내용을 중심으로 여타의 각편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F. 길에서 죽은 당나귀를 얻은 아들은 당나귀 시체를 부잣집 축사에 세워두었다가 그 집 말이 걸어 차 죽었다며 말 한 마리를 대신 받아 냈다.

G. 처녀를 말에 태우고 길을 가던 아들에게 처녀를 탐낸 부자가 수수께끼 내기를 걸자 아들은 자신이 새끼 서 발로 바꾼 것들을 나열하고 무슨 뜻인지 물었다. 결국 수수께끼에 이긴 아들은 부자의 재산을 얻었다.

H.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데려온 처녀와 결혼하여 가져온 재산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잘 살았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새끼 서 발>의 주인공²⁸⁾은 심각한 게으름뱅이의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그 게으름이란 ‘윗목에서 밥 먹고 아랫목에서 똥을 놀 정도’로 비정상적이다.

어찌 아들이 아랫목에서 밥 먹구 옷목에 가 똥을 놓구, 옷목에서 밥 먹으면 아랫목에 가 똥 놓구 그렇게 켈러(게을러)빠졌어.²⁹⁾

이는 켈올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통사람에 못 미치는 결여된 인물상을 뚜렷하게 부각시키는 방향으로써 바보 인물을 묘사하는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아들과 켈올란은 지극히 게으르다는 공통점 외에도, 결손 가정의 일원이라는 점, 게으름만 부리던 지난 시간이 무색하게도 어느 날 집을 나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된다는 점에서 유사한 인물 형상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두 바보 인물의 형상과 서사를 통해 일정한 공통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과 터키의 바보 성공담이 지닌 보편적 바보 형상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와 같은 과정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두 주인공이 지닌 비정상성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표지, ‘게으름’의 함의이다. 이를 가늠하기 위해 앞서 살펴본 바 있는 켈올란의 게으름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본다.

켈올란은 게을렀다. 어머니가 켈올란에게 “아들아, 마당에 가서 양파 가져와라.”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마당까지 가지 않고도 양파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두 시간 동안 생각하는 아이였다. 켈올란의 이런 모습에 어머니는 언제나 화를 냈다.³⁰⁾

켈올란은 마당에서 양파를 뽑아오라는 어머니의 심부름을 수행하면서도 마당에 가지 않고 양파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두 시간씩 궁리한다. 결과적으로 하루 종일 별로 하는 일이 없게 되고 심한 게으름뱅이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데, 자세히 보면 그의 게으름에도 그만의 원리가 있다. 어머니에게 양파를 가져다주는 것은 그도 원하는 일임이 분명하다. 다만 그는 양파를 가져오기 위해 마당에 가기가 싫은 것이다. 앞서 확인한대로 스스로가 원하는 일에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똑바로 나아가는 켈올란이다. 그러한 때에 그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추진력과 적극성을 발휘한다. 그만큼 그에게는 원하지 않는 일,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일에 대한 인식 또한 분명하다. 따라서 그는 원하지 않는 일을 최대한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켈올란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흘러보낸 술한 시간들, 외면적

28) 주인공의 이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관계로 이후로는 기술의 편의상 ‘아들’로 지칭하기로 한다.

29) 김순이(여, 81), 길상면 설화 12, <새끼 서 발로 장가 든 이야기>, 『한국구비문학대계』 1-7, 275~276쪽.

30) Keloğlan çok tembelmiş. Annesi “git oğlum, bahçeden bir soğan getir dediğinde iki saat düşünüp onu ayağına nasıl getireceğine dair bir yol bulmaya çalışmış. Sonunda o yolu bulurmuş fakat annesi de sinirden kudururmuş(Azice Taşkın(여, 1988년생), <똑똑한 켈올란>, Çatkaya/Samsun, 조사일시: 2018.12.06. 15:00~16:00, 조사자: 조홍윤, 손영은, Merve Kahrıman).

으로는 아무런 변화 없이 지나가버린 그 시간들이, 켈올란 자신의 내면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내적 성장의 시간으로 채워지고 있었을지 모른다.

이는 아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처럼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며 나무를 하러 다니는 일은 그가 원하지 않는 일이었으며,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궁구하는 가운데 그는 방안에 웅크리고 있었을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그의 삶이었지만, 내적으로는 차근차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성취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려가고 있었던 것이다.³¹⁾

그와 같은 고민의 과정이 끝나고 켈올란이 찾은 답이 공주였다면, 아들이 찾은 답은 세 발 길이의 새끼줄이었다.³²⁾ 이때 ‘새끼 서 발’이 지닌 상징성이 의미심장하다. 이에 내포된 존재적 자질을 생각해보면, 우선 ‘짚을 꼬아 만들어진 도구’라는 자질이 주목된다. 지푸라기 한 낱은 그 자체로 아무런 쓸 데 없는 무가치한 것이지만 그것을 한 무더기 모아 새끼줄로 꼬아내면 훌륭한 쓸모를 지닌 도구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방안에서 내적 성장의 시간을 경유하고 있던 아들의 하루하루는 못사람들의 눈에 아무 가치 없는 허송세월로 여겨질 뿐이지만 그 시간들을 덧대어 빚어낸 내적 고민의 결과물은 아들의 성공을 견인하는 발판이 된다. 이처럼 ‘새끼 서 발’은 아들이 지푸라기마냥 쓸모없는 존재로 자신을 바라보는 주변인들의 시선, 비정상적 존재로 자신을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을 묵묵히 받아가며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경유하였던 ‘솔한 고민의 시간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죽은 존재에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된 도구’라는 자질이다. <새끼 서 발>의 서사에서 다소 충격적이고 불편한 느낌을 주는 장면은 아들이 죽은 여성의 시체를 이용하여 색시를 얻고, 죽은 가축의 시체를 이용하여 살아 있는 가축이나 말을 얻어내는 트릭스터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이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는 있겠으나 ‘새끼 서 발’의 상징성을 통해 이에 대한 불편을 풀어내자면 아들은 죽은 벼줄기인 짚을 꼬아 실생활의 이용 가치를 지닌 새끼줄을 만들었듯, 죽은 존재로부터 살아 움직이는 가축과 삶의 동반자까지 새로운 삶의 가치들을 빚어낸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해당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아들의 윤리파괴적 행위는 난데없는 파괴성의 발현이 아니라, 죽은 식물 줄기로 새끼줄을 꼬아내듯 죽음을 생명의 가치로 빚어내는 연금술적 능력의 발현이라고도 볼 수 있다. 실상 정상성의 틀 안에 포착되지 않는 바보, 비정상적 인물인 아들에게 윤리와 도덕, 상식 등의 틀은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실제로도 한 각편을 보면, 죽은 여성의 시체를 쌀과 교환하는 아들의 행위는 딸의 죽음에 어찌할 바 모르는 노파를 위로하는 측면이 있으며, 홀로된 노파의 삶을 물질적으로 보조하는 공헌이라고도 볼 수 있다.³³⁾ 윤리라는 정상성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아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31) 신동훈 또한 그와 같은 게으름의 의미에 대하여 “방안에서 뒹굴기만 하던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열심히 궁리했던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신동훈, 『왜 주인공은 모두 길을 떠날까?』, 샘터, 2015, 165~167쪽).

32) 아들의 게으름을 못 견디던 부모가 새끼라도 꼬아 보라고 한 것이 새끼를 꼬는 계기로 구연되는 각편도 있으나 어느 날 갑자기 아들 스스로 짚을 가져다 달라 요구하여 새끼를 꼬았다는 각편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에 새끼 꼬기 화소에 대해서는 아들 나름의 복안에 의한 준비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온당하다.

33) 얼마 가니깐 어디서 울음소리가 나니까는 그 집엘 들어가 봤지. 어떤 할매가 딸을 죽이구선 죽여서 뺨쳐 놓구 앉아 울거든. 그리니깐 이젠 이 총각이 들어가서 하는 말이,
“할머니, 이왕에 죽은 사람을 그냥 두구 울기만 하면 어떡허십니까? 갖다 파 묻으셔야죠.”
“파 묻을 사람두 없다.”구. 그리면서 그리니까,
“할머니, 이 쌀 드릴 테니 진지해 잡숫구 계시겨. 그리구 이 시체는 내가 갖다 파묻어 드리리다.”그리거든. 그리니깐, 아 이 늙은 할매가,
“아유, 세상에 고맙기두 해라.”
그리구선 쌀 한 말을 받구 딸을 내 줬지.

정상성의 틀을 소거하고 사건을 바라본다면 아들 자신에게는 물론 교환의 상대방에게 있어서 까지 긍정적 삶의 가치를 창조해내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물론 속임수로 인해 딸을 빼앗긴 부잣집이나 속아서 시집을 온 딸에게는 피해를 끼친 것이 아닌가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아들의 서사가 성공으로 귀결되면서 상대 집안은 부자 사위를 얻게 되고 색시는 부자 남편을 얻게 된 것이다. 실상 여성과 가족의 죽음에 아들 자신이 관여된 것도 아니며 그대로는 아무런 가치도 지니지 못하고 그 죽음을 감당해야 할 이들의 고통만을 자아냈을 시체들로부터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해낸 아들의 행위를 긍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³⁴⁾ 이는 아들 자신의 존재성 변화와도 이어지는 맥락이 있다. 방안에서 뒹굴던 나날의 아들은 살아있기는 하나 그를 둘러싼 세상에 아무런 존재적 의미를 내보이지 못하는 죽음의 상태에 놓인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아들은 그러한 나날 속에서 원하는 삶의 성취를 위한 고민을 이어갔으며 결국 방 밖으로 나왔을 때에는 지난날의 무력함을 의아하게 여길만한 생명력을 발휘한다. 이처럼 ‘새끼 서 발’에는 무능력한 게으름뱅이 바보, 시체와도 같은 무가치한 존재에서 비범한 삶의 에너지를 발현하는 존재적 변모를 이루어낸 아들 자신의 형상이 투영되어 있으며, 자기 자신이 변모하였듯 무가치한 대상들에서 생명의 가치를 창출해내는 아들의 모습 또한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아들의 손에 쥐어진 ‘새끼 서 발’에 대하여 다음으로 주목되는 자질은 ‘연결과 결속의 도구’라는 점이다. 아들은 빈손에 새끼 서 발만을 들고 자신 있게 집을 나선다.³⁵⁾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고작 새끼 한 줄로 무엇을 할 수 있기에 그리 자신만만할까 의아할 뿐이지만, 아들은 놀랍게도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의 필요와 자신이 가진 것을 연결해가는 가운데, 옹기, 색시, 말, 소와 재물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더 큰 가치들을 자신에게 결속해 간다. 그리고 보면 아들이 집을 나서기 전 겨우 새끼줄 한 가닥을 꼬아들고 만반의 준비를 끝낸 듯 당당했던 것도 그가 기획한 성공의 과정에 정확히 부합하는 도구가 ‘새끼 서 발’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방안에 누워 세상과의 연결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가치를 결속해 나가는 성공적 삶의 원리를 깨달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세 발의 새끼줄을 고안한 것이다. 이와 같이 ‘새끼 서 발’은 아들이 세상에 나아가 꿈꾸던 삶을 성취해가도록 한 ‘성공적 삶의 원리’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세 발’이라는 길이가 가진 상징도 의미심장한데, 이를 이해하려면 새끼줄의 길이를 재는 방법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새끼줄 한 발은 성인 남성이 양팔을 벌려 잡은 줄의 길이를 말하는 단위이다. 이를 측정할 때에는 한 사람이 긴 줄의 끝을 양손으로 잡아 훑으며 자신의 양팔을 활짝 벌렸다가, 다시 한 발되는 자리에서 양손을 모아 줄을 잡고 양팔을 활짝 벌리는 방식이다. 이때 긴 새끼줄은 손의 위치를 변경함에 따라 한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측정 방법을 고려할 때 ‘세 발’이라는 길이는 의미심장해진다. 세 발 길이 새끼줄의 양 끝을 맞대면 새끼줄은 원을 그리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의 새끼줄 한 부분에 양손을 모아 잡

김순이(여, 81), 길상면 설화 12, <새끼 서 발로 장가 든 이야기>, 『한국구비문학대계』 1-7, 277쪽.

34) 장황한 서술을 피하기 위해 주석으로 설명을 덧붙인다. 죽은 여성의 시체로 색시를 얻는 행위와는 달리 부잣집에서 죽은 가족의 시체로 살아있는 가족이나 말을 얻어낸 행위는 명백히 속임수를 통해 상대방을 침해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아들은 치밀한 탐색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최대한 적은 피해를 미칠만한 큰 부잣집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아들의 행위가 부잣집에는 큰 의미 없는 피해로 작용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결정적인 가치창출로 이어진 정황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아들의 행위를 완전히 부정적인 것으로만 바라 볼 것은 아니다.

35) 새끼로 꼬아가꼬, 그래가꼬 새끼를 썩썩 비비서 서너발 꼬아가꼬 똥구녕(구멍)에 차고 밥을 묵고,
 “엄마, 나 인자 어데 가누마.”
 “아이 야야, 오데 가노?”
 “나도 인자 하도 엄마가 그래싸코 벌이 먹이기가 안 되서 그래싸코 하이, 나도 인자 이래 나가모 언제 올 지 모르겠구마.”

진능성(여, 97), 대구시 설화48, <새끼 서 발로 부자된 아들>, 『한국구비문학대계』 7-13, 204쪽.

고 정해진 측정 방법에 따라 측정을 시작하면, 실상 새끼줄은 손 안에서 한 발 길이씩 무한한 횟수로 이동하게 된다.³⁶⁾ 이렇게 본다면 아들은 단지 세 발의 새끼줄을 꼬았을 뿐이지만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그 길이는 무한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측정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새끼 두 발’은 남는 길이가 없어 부족하고, ‘새끼 네 발’은 불필요하게 많이 남는다. 최소한의 길이를 통한 무한의 확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꼭 ‘새끼 서 발’이어야 되는 것이다.³⁷⁾ 것처럼 ‘새끼 서 발’은 곧 원하지 않는 일을 최소화하면서도 무한한 삶의 가치를 창출하고자 했던 아들의 고민이 만들어낸 결과이며, 겉으로는 한없이 초라해 보이거나 세상에 연결되어 움직여감에 따라 수많은 가치들을 엮어나갔던 아들 자신의 형상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처럼 ‘새끼 서 발’은 서사의 전체에 걸쳐진 아들의 형상을 오롯이 보여주는 상징이다. 게으르고 무능력한 바보, 죽음의 상태에 놓인 것처럼 존재의 의미를 보여주지 않던 아들의 모습을 함의 하는 동시에, 그러한 모습을 변모시켜 결국은 긍정적인 삶의 가치를 발현해내는 아들의 모습 또한 담고 있다. 한 없이 모자라 보이는 아들의 존재성을 세 발의 길이로 담아내는 동시에 그러한 모자람으로부터 무한의 가치를 확장해내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할 일 없이 방 안을 뒹굴던 무가치해 보이는 나날을 상징하는 동시에, 그러한 나날 속에서 세계와 자신을 연결하고 삶의 가치들을 결속해나갈 성공의 원리를 빚어낸 아들의 모습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새끼 서 발’은 모자람을 통해 무한의 가능성을 빚어낸 아들의 모습, 그의 바보 형상이 지닌 전모를 함의하고 있는 것이다.

켈올란이 자신의 모자람에 구애됨 없이 자신이 원하던 삶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아들 또한 자신의 모자람에 구애됨이 없다. 둘 모두 타인의 눈에 아무리 걸여된 인물로 보일지라도,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삶으로 그의 존재성을 채우려하지 않는다. 현실의 우리를 돌아보면 정상성을 획득하기 위해 원하지 않는 말과 행동, 삶으로 우리의 존재성을 채워가고, 그것이 그야말로 정상적인 삶이며 감내해야 할 고통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는 한다. 그것이 안정적인 삶을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한 일임을 부정할 수는 없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성의 표상으로 여겨지는 것들, 학력, 직업, 지위, 재산, 권력 등에 천착하여 실질적인 삶의 행복을 파괴해가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두 주인공은 그러한 우리에게 그들의 형상을 통해 묻는다. ‘정말 원하고 필요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굳이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 고통을 자초하지 말고 모자란 채로 비워두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모자란 상태로 비워두었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로 삶을 채워가는 것이 어떤가?’ 하고 말이다.

4. 결론 : 한-터 설화 속 바보 형상의 보편성에 비추어 본 바보 이야기의 가치와 의의

지금까지 한국과 터키 양국의 대표적인 바보 성공담 유형인 <켈올란 이야기>와 <새끼 서 발>을 통해, 양자에 공통된 바보 형상이 인간의 삶과 관련하여 어떠한 보편적 함의를 지니고 있는가를 탐색해보았다. 이에 지루한 논의를 거듭 언급하여 정리하는 것보다는, 그와 같은 보

36) 새끼줄을 저녁에 시작하거든. 시작을 해서 꼬는데 얼마 전 한참 있더니 한 발, 두 발 그냥 서 발을 짜 가지군 맞대가지구 밤낮 돌려서 시(세)거든. 그러니까 그게 수백 발 되잖아? 밤낮 되돌려 시니깐 ‘저놈이 얼마나 많이 짜 가지구 저렇게 시나’하군 그 이튿날 아침에 인제 봤단 말야. 보니까 새끼 서 발을 짜 놓군 그렇게 밤새도록 시였거든.

김순이(여, 81), 김상면 설화 12, <새끼 서 발로 장가 든 이야기>, 『한국구비문학대계』 1-7, 276쪽.

37) 조은상은 세 발 길이의 새끼줄을 세며 “한 발, 두 발, 백발”을 노래하는 아들의 모습에서 아들이 지닌 과장된 자기상을 엿볼 수 있다고 논한 바 있다(조은상, 앞의 논문, 164쪽). 일리 있는 견해이지만, 좀 더 온당한 것은 설화적 역설로써 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딱 세 발 길이의 새끼줄을 통해 수백 발의 새끼줄로도 이를 수 없는 가치를 창출해낸 아들의 행보를 생각할 때에는 ‘세 발’이면서도 ‘무한’일 수 있는 새끼줄의 가치, 가진 것 없는 게으름뱅이 바보이며 한없이 모자란 인간으로 보이지만 모자란 자기 그대로의 모습으로 무한한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아들의 형상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이해된다.

편성을 지닌 바보 이야기의 위상을 돌아보고 그 의의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결론을 갈음하고자 한다.

앞서 말한 바, 두 바보 성공담에 나타난 주인공들의 형상은 모자람을 통해 정상성으로 틀지워지지 않는 무한한 삶의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는 의의가 있다. 이로써 이야기의 향유자들은 눈에 보이는 가치들로 표상화 되어 있는 정상성의 굴레에 매어 고통받고 있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 그리고 두 주인공처럼 이를 벗어 던지고 자기 자신으로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인식적 전환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모자란 자기 자신으로서도 족하다. 정상성을 획득하기 위해 진정으로 원하지 않고 진정으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억지로 자기 삶에 채워 넣지 않아도 된다. 모자란 채로 남겨두면 진정 원하는 것들로 자기 삶을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남는다. 두 주인공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깨달음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세계적으로 전승되고 있는 여러 바보 이야기의 궁극적 가치는 그와 같은 바보의 형상을 사람들의 내면에 아로새기는 것에 있으리라 여겨진다.

터키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켈올란의 형상을 접한다. 집안의 어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로, 수없이 출간되고 있는 이야기책을 통해서, 학교 수업을 통하거나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것처럼 자연스럽게 거듭 접하게 된 켈올란의 형상은 자연히 그들의 내면에 자리잡는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로 하여금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채워지면 채워지는 대로 구애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식적 힘을 제공한다. 한국에 비하여 운택한 삶을 산다고 볼 수 없는 터키인들이다. 최근에는 정치·경제적 문제로 더욱 각박한 현실에 놓여있는 그들이지만, 연구자들이 보는 터키인의 삶은 오히려 한국인에 비해 여유와 즐거움이 넘친다. 그러한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내면화한 켈올란의 형상이 그들로 하여금 삶의 문제에 좌절하지 않고 나름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정서적 지지대가 되어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러하기에 터키인들은 <켈올란 이야기>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조사 과정에서 만난 올해 60세의 제보자 Fatma Şafak(여, 1960년생)은 요즘에도 TV에서 방영되는 <켈올란 이야기>의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즐겨 보고 있다고 하였다. 켈올란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행복한 느낌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린 시절 제보자의 아버지는 그녀가 쿠란(Quran)을 읽을 때마다 상으로 <켈올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하며 켈올란을 접할 때마다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하였다. 그녀의 내면에 자리 잡은 켈올란의 형상은 그 본래적 힘을 넘어서었다. 거기에는 그녀로 하여금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따뜻하고 포근한 추억의 형상까지도 함께 깃들어 있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새끼 서 발>이 지닌 위상은 아쉬움이 있다. <새끼 서 발>의 주인공 형상이 결코 켈올란에 못하지 않음에도 실제 한국인들의 삶에서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 어느 곳보다도 현실주의의 영향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는 어른들로부터 옛 이야기를 들으며 내면의 힘을 키우는 문화 자체가 단절된 상황이다. 따라서 그러한 이야기에 접촉할 기회조차 매우 한정적인데, 그나마 도서나 학교 교육을 통해 접하게 되는 옛이야기 중에서도 일련의 바보 이야기 유형은 그저 '우스운 이야기'로 치부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인지 많은 한국인들이 <새끼 서 발> 속 주인공이 보여주는 그것과 완전히 반대된 모습으로 살아간다.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심한 사회, 손꼽히는 부국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상의 삶을 위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야 하는 사회, 그러하기에 세계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가 바로 한국 사회이다. 그야말로 <새끼 서 발>의 바보 형상이 가장 절실한 사회가 한국 사회인 것이다. 이러한 점은 여러 문학 연구 및 교육 종사자들의 고민이 필요한 문제이다. 이제라도 <새끼 서 발>을 위시한 한국의 바보 이야기들이 지닌 가치와 위상을 재조명하고 거기 깃든 바보 형상들을 한국인들의 정서적 힘으로 삼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할 때가 아닐까 한다.